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 8주년

주일 낮 감사예배와 성찬식...찬양예배 맨 임직식

장로임직자



이번생



민순구



윤찬오



이완형



임훈규

집사임직자



허상한



신순우



이남성



정동호



최재규

오늘 금세기 마지막 추수감사절과 교회 창립 8주년 기념일을 맞아 교회는 I·II·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갖고 추수감사절 헌금도 같이 드리게 된다. 교회학교별로도 각기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 장로·집사·권사 임직식을 갖는다.

오늘 임직식에선 이번생·민순구·윤찬오·이완형·임훈규 등 5명의 피택장로들이 임직을 받고 장로에 장립하게 되며 허상한·신순우·이남성·정동호·최재규 등 5명의 피택안수집사들이 안수를 받고 46명의 피택권사가 임직을 받게 된다. 오늘 임직을 받는 권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권사임직자

곽선자 김선희 김성은 김수호 김운자 김인희
김차순 김희숙 나옥녀 남태순 박명석 박영자
박운혜 서옥덕 선연자 송옥혜 신동기 심화숙
여영숙 여현진 오영자 왕경희 이민자 이봉규
이연숙 이영숙 이영희 이용자 이운진 인천희
임운자 전수자 정연택 정현숙 조상희 채덕희

최근자 최봉애 최원자 최일춘 한건석 한춘홍 황노전 황보추자 황인숙 황재연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와 권사는 지난 6월 첫 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15주 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제물을 제출했으며 종합시험과 당회원 면접을 거쳤다.

아멘관현악단 단원 모집

아멘관현악단이 신설되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멘관현악단은 주일 I·II·III부 예배 시 헌금시간에 기악 연주로 찬양을 담당하게 되며 월 1회 정도 찬양예배시간에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지휘는 김복순 집사가 맡는다.

기악을 다루는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문의 및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다음 주일 서리집사 임명식

다음 주일 I·II·III부 예배 시에는 2000년도에 봉사할 서리집사를 임명하는 순서를 갖는다.

새 예배당 소식

비상 기도회 엮니다

시공사 재정난으로 공사 일시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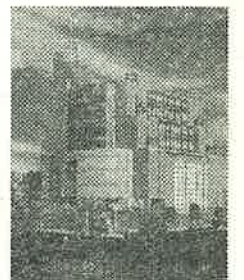
1998년 10월 10일 '일 시작 감사예배'를 드린 후 새 예배당 건축 공사는 날개를 단 듯이 공정보다 빨리 진척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부터 시공회사의 재정난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 사태에 빠지게 됨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만에 빠져 자랑했고 무엇보다 책임을 못다한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지난 주일 임시제 직회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 26일 당회원들이 앞장서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이종윤 목사는 온 교회가 새벽마다 한마음으로 간구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얼마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기도 강단을 본인이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와 정성을 모으는 계기로 삼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순례자 창간 8주년

순례자가 교회 출범과 함께 창간, 복음과 교회 소식을 전달해온 지 8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격려에 감사드리오며 가차없는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99 추수감사절 메시지



교회로 부르심, 말씀의 풍성함, 범사에 도우심을 감사하자

이종운 목사

서 울교회 설립 제 8주년과 '99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많은 성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도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이 땅에 대풍을 주셨고 우리 교회엔 새 예배당 건축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온 교회가 평안한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신실하고 충성스런 새 일꾼을 허락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전하면서 세계를 교구로 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로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가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8년 전 오늘 50일 간의 감격적인 기도회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부흥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책임있는 교회로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벅찬 감사의 날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의미있는 날로 보내면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1. 교회로 부름받아 평강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골3:15)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요(엡2:14) 평강의 주시며(살후3:16), 거룩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요14:27). 영원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 몸되신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감사합니다(골3:16)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이 말씀은 인격적이어서(요1:1, 12)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벧전1:3, 23, 25). 이 말씀은 창조적 힘을 가졌으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보존해 줍니다(히1:3).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룩케 하며(요17:17) 발의 등불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며(시119:105) 우리 삶의 힘이 됩니다. 이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감사해야 합니다.

3. 범사에 도우심을 감사해야 합니다(골3:17)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볼 줄 아는 '내려다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윤택해집니다.

한편 미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는 '앞을 보는 눈'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을 얻은 후에 감사하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 한번 못하고 행복은 영원히 주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참 행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립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감사가 넘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민이 되고 밝은 땅마다 성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교회설립 8주년을 맞이하면서

꿈꾸는 그 나라 되리라

신동기(집사, 3교구)

그렇게
땅은 손발이 동여지고
침 삼킬 수 없는
암울한 어느 가을날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조각난 하늘의
여윈 목숨을 움켜쥐다
육체를 가로질러
삭발한 머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는

비장한 부르짖음이라
흐르는 눈물이 하루같이 휘돌아
하늘의 길을 내고
오직 그 곳을 가고자
사된 부름으로
반석 같은 새벽을 숙성시킨다
오늘도
그 길을 걸으며
또 다른 죽음으로
축복된 내일의 내해를 펼치리라

하늘의 쏟아지는 길채 속에서
이 땅의 놀라운 환호 속에서
여덟번째 맞는 생일 잔치!

이기지 못하는 이 기쁨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품을 수 있다면
내 것도 뉘 것도
다 비워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한 알의 밀알되어
썩고 또 썩어질 때
그 피로
말갱게 더 말갱게 씻겨져
새로운 천년의
꿈꾸는 그 나라 되리라

● 임직을 받으며 ●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렵니다”

최재규(집사, 11교구)

송구스러움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주님께 서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고향인 시골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불러주셨고 그 후 지금까지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당에서는 교인을 볼 수 있으나 평일에 세상에선 성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비난 섞인 말이 저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젊은날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보잘것 없는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고 자신의 재물과 지식을 우상으로 삼는 바보스러운 삶을 살다가 선이 지나고 건강치 못한 시기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의지하게 되는 것이 주님께 죄송스런 마음뿐입니다.

어린 시절,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 이웃 동네로 크리스마스 새벽송을 다니던 일, 탕자의 비유를 그림카드를 통해 감명 깊게 성경말씀을 배우던 일이 었는데 벌써 머리칼이 반백인 장년으로서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 왔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수고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을 실감하면서 아 짧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장식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믿긴 했으나 집을 여러번 옮기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 성도의 교제가 뜰해지고 믿음의 성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서울교회로 발걸음을 인도 해주시고 이제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남은 생을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며 아름답게 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 합니다.

“겸손함으로 웃입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남성(집사, 9교구)

설레임보다는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허물 많고 게으른 그간의 제 모습을 뒤돌아 보면 부끄러움 밖에 남는 것이 없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마치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께서 “달리다굴!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스데반 집사의 본을 생각해

봅니다. 그 모습을 힘써 본받아야 함에도 마치 요나처럼 멀리 도망치고만 싶은 부족한 저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몸되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겠습니다. 앞서 세움을 입으신 선배 집사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배우고 섬김의 도를 힘써 실천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암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그 크심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을 암송하면서 받은바 은혜가 너무 커서 폭발할 것 같은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을 마치면서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는 제 고백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노라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세상 일에 얽매어 있는 저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듯했습니다. 내년 성경암송대회에는 전교인이 참가해서 올해 제가 체험했던 이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하자면 한이 없으나 여기에 아주 적게나마 말씀을 암송하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족 위에 회개의 은총을 주옵소서! 이 민족이 죄악으로 징계의 채찍을 맞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는 깃털이라 몸통은 따로 있다면서 남만 탓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의 깃털이 모두 뽀뽀 죄의 몸통이 숨을 곳이 없는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배

● 암송대회에 참가하고서 ●

감당치 못할 말씀의 은혜

김대웅 (집사, 12교구)

풀어 주옵소서.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케 하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술로는 고통 분담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교만함에 빠져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유보다 나눔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았으나 이제 진노의 채찍은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들 어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말씀대로 키우라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배할 시간에 오히려 공부하려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 가라고 야단을 쳐도 듣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자녀들을 불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아 승리의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어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큰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코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순조로운 공사와 기적적인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였다고 확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기도로 이 전을 세웠노라”고 증거할 수 있도록 완공의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서울교회를 만나게 하심에 감사가 넘칩니다.

미리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직장을 서울로 청해주시어 고향인 대구를 떠나 작년 7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축복과 동시에 서울교회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음을 감사한다.

교회 출석 첫 주부터 임마누엘찬양대에 서게 하셔서 매주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대의 여러 대원들과 나눔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예배당 건축에 동참하게 하시어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짐을 보며 그 복을 주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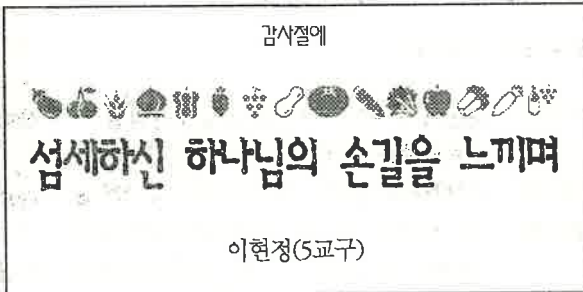
감사드린다.

형제·자매의 사랑이 그리울 때에 서울교

감사드린다. 은혜가 가득한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드리는 기쁨과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엔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는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주춧돌이 되어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라며 은초(恩礎)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제는 이 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기도한다.

나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섬세한 손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할 수 밖에 없음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회 새가정부를 통하여 믿음의 좋은 형제들과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나눔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교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심을

되는 기도회의 소식을 속속 들으며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경험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기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영광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목자를 섬기며 한 교회에서 중성하시던 여러 권사님들, 이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분들이 분연히 일어나 헌신하던 교회를 등지고 고생길을 자처하고 나오심을 보고 나 역시 옳은 결단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겐그리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으신 사도 바울처럼 이 목사님은 그렇게 머리를 깎으시고 고통의 피눈물을 흘리신 자국이 역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셨습니다. 그 때 우리는 모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배 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휴지를 넉넉히 가지고 다녀야 했습니다. 8년이란 길다고도, 짧다고도 말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간 하나님께서 나 개인은 물론 교회에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가끔 흥부네 제비를 생각합니다. 다친 다리를 고쳐준 흥부네 제비도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흥부네 집에 박씨를 물어다 주었는데 인간인 나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했는가?

이 글을 쓰는 지금 저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처럼 잔잔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서울교회 권속들이, 나는 지금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 지극히 마음이 상심해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도 너희의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겠나?"

■ 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12월 2일(목) 연목회 총회를 소집한다.
- * 이명아 집사(3교구)는 24일(수)부터 30일(화)까지 인사갤러리 2층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 * 김미숙 집사는 수지 2지구 현대아파트 상가 내 '하나마트'를 개업했다(☎ 0331 - 263 - 0581).
- * 이일순 집사는 논현 2동 노인정 옆에 '기림미술실'을 개업했다(☎ 545 - 5569).
- * 이번 주 직시는 오늘 임직을 받는 장로·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신임장로는 29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설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흥부네 제비만큼이라도

이강인(집사, 11교구)

8년 전 그 때 저는 먼저 된자의 오만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갔다오면 주보의 설교제목에 보며 '오늘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겠구나' 하면서 주일성수도 제대로 하지않고 방만한 때를 보내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낙심한 아내로부터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않던 내가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알 리가 만무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고등부 교사를 하시는 임낙규 집사님 맥에서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서울교회는 이미 이 곳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눈물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던 터라 처음 보는 얼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상황에 대해서 토론하며 뜨거운 기도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시원해지는 듯했습니다. 이후로 이육년 권사님 맥에서 계속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명자대회와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운동을 위해
2. 새로 임직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
3. 대학입시를 치르는 성도들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